

변화 모색하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새정부 출범 계기 '정체성' 담아내고

민생현안 사업 발굴 등 '주민 곁으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단체의 '정체성'을 담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만한 민생 현안 사업을 발굴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각오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가 그동안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데 계 역할을 하지 못해 비판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YMCA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18 기념재단,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참여자치21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단체별로 정기(임시)총회를 열고 쇄신방안과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새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단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는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제도와의 계

기로 삼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참여자치21는 지난 1~2일 수원 보훈회관에서 연 정기총회에서 새정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참여자치21은 올해 지역균형발전 위한 개헌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5·18기념재단도 신임 오재일 이사장 출범 직후 새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5월 관련단체 공법단체 추진문제 등 내부 갈등을 봉합한 뒤 5월 정산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가 탈(脫) 이념·지역 등 국민대통합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5월 관련단체도 이를 토대로 하는 사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광주YMCA는 지난 1월 총회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7대 운동과제를 제시, 작지만 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자는 계획이다. 또 20개의 마을Y센터 조직과 5만명 회원시대를 연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새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단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단체 간 연대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사업도 발굴해 적극 대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입시전략 설명회에 쏠린 눈

대학입시 전문학원인 대성학원이 지난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4 대입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산불 내는 논·밭두렁 태우기 어찌할꼬

50만원 과태료 불구 울들어 임야 화재 63건

합평 80대 사망 등 인명피해...소방당국 곤혹

전남지역 주민들의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로 이어지면서 인명·산림 피해가 잇따라 소방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남도가 논·밭두렁 소각할 경우 미리 신고토록 하는가 하면, 적발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되레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없어서다.

3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울들어 현재까지 전남지역에 모두 63건의 임야 화재가 발생, 174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6건)에 비해 2배를 넘는다.

논·밭 등이 많은 전남의 경우 전체 화재 중 임야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10.3%에 달해 전국 평균(4.9%)을 크게 웃돌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가 매년 논·밭두렁 소각 행

위가 산불로 번지면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실제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1시경 합평군 합평읍에서 강모(80)씨가 자신의 논두렁을 불태우던 중 강풍을 타고 번진 불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숨졌으나 화재 중 임야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도 10.3%에 달해 전국 평균(4.9%)을 크게 웃돌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가 매년 논·밭두렁 소각 행

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8년 '전남도화재 예방조례'에 따라 임야에서 불을 피울 시에는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이 신고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통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자는 취지지만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도 인력과 장비 부족 등을 들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시·군에 통보해주는 데 그치고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병충해의 전적인 거머 등을 제거해 영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 순경 '바늘구멍'

800명 몰려 266대 1

전남도 70대 1 경쟁

취업 한파 속에 순경 공채에 응시자가 몰려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일 광주·전남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남자 순경 3명을 뽑는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모두 800명이 몰려 26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대 순경 공채 중 최고라는 게 광주청 설명이다.

3명을 뽑는 광주청 여자 순경도 338명이 몰려 1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국적으로 302명을 뽑는 여자 순경 경쟁률은 81.54명이 몰려 27.6대 1로 가장 높았다. 1030명을 선발하는 남자 부문은 2만3896명이 응모해 23.2대 1을 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폭행 피소 박시후씨 측

고소녀 카톡 메시지 제출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후(35)씨와 동료 연예인 김모(24)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박씨 측이 제출한 고소인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록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A씨와 김씨, A씨와 지인 B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지난날 26일 경찰에 증거 보전 청구를 신청, 법원에서 압수 해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본 사로부터 대화 내용을 넘겨받았다.

메시지 중에는 A씨가 사건 당일 김씨에게 귀가 사실을 알리는 등 안부를 확인하고, B씨와는 박씨에게 합의금 수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경찰 조사에 임하는 방식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9분 해질 18시 30분 달돋이 00시 20분 달지기 10시 49분

낮부터 포근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2/12C
목포	맑음	-2/11C
여수	맑음	2/12C
나주	맑음	-4/12C
완도	맑음	-1/12C
구례	맑음	-4/12C
강진	맑음	-4/12C
해남	맑음	-4/12C
장흥	맑음	-4/13C
순천	맑음	-4/11C
영광	맑음	-3/10C
진도	맑음	-1/11C
전주	맑음	-3/12C
군산	맑음	-3/10C
남원	맑음	-6/12C
옥산도	맑음	3/10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관심	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목포	06:39	11:42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여수	01:09	07:14
				13:17	19:24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씨						
최저/최고	-1/13	2/16	6/15	8/19	7/20	5/15

주한미군 서울도심 난동 도주

경찰, 실탄 쏘며 심야 추격전

주한 미군들이 서울 도심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난동을 부리고 도주,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며 심야의 추격전을 벌였다.

미군은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추격과정에서 미군 1명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다쳤다.

3일 서울 용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 53분경 용산구 이태원동 헤일리 호텔 앞에서 주한미군이 "공기총이나 새총을 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태원 지구대 경찰 2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서 오퍼마 승용차를 탄 주한미군 B모(23) 일병 등 3명을 발견, 검거에 나섰으나 미군은 경찰을 차량으로 밀고 도망갔다.

마침 인근 은행 현금기금기 창구에 갇힌 외국인인 도와주려 출동한 이태원지구대 임모(30) 순경이 택시기사 최모(38)씨의 신고를 받고 최씨의 대화를 나눈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시속 150~160km의 속도로 도주했고 추격전은 이들이 3일 오전 0시 10분경 광진구 성수사거리의 한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10여분가량 이어졌다.

미군들은 접근하는 임 순경을 향해 전·후진을 반복하며 4차례나 돌진했다. 임 순경은 공포탄 1발을 쏘고 차량이 멈추지 않자 차 바퀴 등에 실탄 3발을 발사했으나 미군들은 임 순경의 왼쪽 무릎과 발등을 들이받고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해 차량이 미군 소속임을 확인했다. 차를 운전한 B일병은 왼쪽 어깨에 실탄을 맞아 미군 병원에 입원했으며 위급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차량은 도주 과정에서 이태원구 광진구 도로변 등에 주차된 차량 4대와 시민 2명을 들이받는 등 무방비 질주했다.

미8군 크리드 센터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용산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연필뉴스

롯데제이티비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여행문의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금남로점 062) 228-6644**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 062) 228-6644**

“광주출발 고풍적 터키” *유행항공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불포함!

“동서양의 만남” 터키 완전일주 8일 *국내선 2회 항공이동 포함!

광주 출발 1,849,000 원부터

▶3/25,29 ▶4/2,5,9,15,19,22~ ▶5/3,6,10,13,17,20~

●특전

- 터키 항공 직항 이용
- 이스탄불, 에페소, 이즈미르 관광
- 앙칼비 특식 (피르올라) 포함
- 현지 국내선 2회 항공이동

“롯데제이티비와 함께 무안출발 북경 vs 면산 vs 장가계” **특가할인!** 알찬여행 즐기세요! *무안출발 전선불 유류할증료 불포함!

“대륙의 신비” 북경 4/5일 *만리장성, 서커스, 천안문, 자금성!

무안 출발 329,000 원부터

▶매주 화요일, 금요일 출발

●특전

- 만리장성 케이블카 포함
- 북극해저세계 관광
- 3대 특식 제공 (북경 오리구이, 사브사브, 꿩고기)

“중국 공중도시” 면산 4/5일 *북경+면산+태원!

무안 출발 709,000 원부터

▶북경-태원 열차관광

“중국의 그랜드캐년” 태항산 4/5일 *북경+태항산!

▶입주대합객 관광

유럽 **동남아** **일본/괘사이판** **중국** **미주/남태평양** **SIT**

신규대리점! OPEN! 하남점 062) 611-8875

●광주권: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컵, 롯데마트 수완, 북구점, 기아점, 백운점, 구시창점, 양동점, 상무역점, 문화전당점, 사당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 ●전남권: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